

글 _ 문정철 | 해외사업리더리

2005년 對 브라질 수출전망 밝다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는 아직도 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이 실시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배짱을 내보인 것이다. 세계에서 8번째 규모의 인터넷 보급망을 가진 브라질,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우 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은 지난 8년간 브라질의 금융시장 불안과 높은 관세장벽, 그리고 저조한 현지투자로 17억달러 대를 넘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금년도 대브라질 수출은 브라질 국내경기 회복세 지속과 지속 성장 기반 마련, 해알화 강세, 현지 투자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브라질 수출전망 '맑음'

최근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콜라 정부 집권 첫해인 2003년 GDP 성장률 마이너스 0.2%에서 2004년 5% 성장, 2005년 3.5~4.0%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 호조 및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힘입어 브라질의 대외 수출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000억달러에 그치는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722억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저시경제의 긍정적 지표와 함께 수입절차 간소화, 소비자 구매력 확대, 등 다양한 국내외 요인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하고 브라질은 EDCF자금 수혜국이 된다. 또한 특히 브라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프로젝트(PPP)가 대통령 의 재가를 받고 2008년부터 PPP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임에 따라 공공프로젝트 및 장비구매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브라질의 수출둔화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 외 국제유가가 불안 가능성, 중국산 진출 확대, 남미 국가간의 역내교역 비중 확대 등은 현지 시장 진출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야별 수출호조 예상 품목

금년도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야별 수출호조 예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무선통신기기 : 지난해 11월말 현재 휴대폰과 휴대폰 부품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의 대브라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6.2% 증가한 6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금년에도 휴대폰 수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팬택이 금년부터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어 휴대폰 및 부품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 부품류 : 브라질의 가전제품, IT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품산업 취약으로 당분간 부품수입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3) IT제품 : 브라질의 경기회복에 따라 IT시장이 지난해부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컴퓨터 및 주변기기, PDA, 인터넷 솔루션, 디지털카메라 등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에 대한 마케팅 채널 확보, 자금 확보, 시장 정보, 언어 등 많은 부분에서 현지 진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현지 목표 시장 정보 접근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초기 진출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박람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중남미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획득과 함께 품목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대리점 확보, 전설턴트사와의 제휴, 현지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공급 등 진출방식의 다양화를 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머나먼 해외 시장 진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해외 시장 경쟁전 살아 남는 방법은 우리 기업만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하여 寸鐵殺人(존철살인)하는 방법뿐이다. <자료출처 : Kotis, 상파울루 무역관>